10강 매춘

1. 매춘의 메커니즘

1.1 매춘에 숨겨진 복잡한 논리

◇ 매춘에서 돈의 변증법적 기능에 대해. 돈은 쾌락을 사는 것이지만 동시에 수치심의 표현이 된다. 카사노바는 한 화류계의 여자에 대해 "나는 그녀에게 뭔가 나름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미묘한 발언은 그가 매춘의 가장 은밀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대가 정해진 요금밖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여자도 매춘부가 되려고 결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대가 규정된 금액에 몇 퍼센트 더 얹어줌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도 매춘부에게는 충분한 기반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무의식적 지식에 기초해 매춘부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이 문제는 화폐가 여기서 단순히 지불수단이라거나 혹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매춘부의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손님의 수치심은 그렇지 않다. 수치심은 일이 진행되는 15분 동안을 위해 숨을 곳을 찾으며, 가장 상냥한 것에 그러한 곳을 구한다. 돈이 그것이다. 사랑의 유희 형태가 여러 가지이듯 지불방법도 각양각색이다. 느려터지거나 아니면 잽싸며, 은밀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이거나. 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사회라는 신체에 수치심으로 붉어진 상처가 생기면 사회는 돈을 분비해 그것을 치유한다. 상처는 금속 딱지로 덮인다.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싸구려 쾌락은 교활한 난봉꾼에게 맡겨두자. 물론 카사노바는 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뻔뻔스럽게 동전 한 닢을 책상 위에 던져도 보겠지만 수치심을 느끼면서부터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동전 100닢을 더 얹어주게 된다는 것을. 『아케이드 프로젝트』〔O1a,4〕

◇ 사랑은 상대방을 독점하겠다는 소유욕이 만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 매춘부는 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

→ 매춘부를 사는 것은 자본주의로 정당화되는 강간이라 할 수 있다.

◇ 사랑이 자본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그것은 매춘이라는 이질적인 형태로 변형된다.

2. 보들레르와 매춘

2.2. 파리의 시인이 매춘부 옆에서 꿈꾸었던 것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어느 날 밤, 끔찍하게 생긴 유대 계집 곁에,
시체 곁에 또 하나의 시체 있듯이 나란히 누워,
그 돈에 팔린 몸뚱이 곁에서 나는 생각했다,
내 욕망이 포기한 저 서글픈 미녀를.

나는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녀의 타고난 위엄을,
힘과 우아함을 갖춘 그녀 시선을, 그녀 머리카락은 향내 나는 투구,
생각만 해도 사랑이 내게 되살아난다.

고상한 그대 몸에 열렬히 입 맞추고,
싱싱한 그대 발끝에서부터 검은 머리칼까지
깊은 애무의 보물을 펼쳤으리,

만일 어느 날 저녁, 나도 모르게 흘린 눈물로 인해,
오 잔인한 계집들의 여왕이여! 그대
차가운 눈동자의 광채를 흐리게 할 수만 있다면.
-「끔직한 유대 계집 곁에 있었던 어느 날 밤」『악의 꽃』

◇ 보들레르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때에만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 매춘부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위엄이나 우아함도 없다.

◇ 도박장이나 사창가를 기웃 거릴 때 보들레르는 노동과 사랑에 대해 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그가 도박장과 사창가를 멀리 하려 했다는 것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건강한 노동과 사랑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